

광주극장은 전국의 극장 가운데 아직도 손그림 간판을 그리는 유일한 곳이다. 지난달 31일 극장 간판 작업이 모처럼 북적거렸다. 20년 가까이 광주극장 영화 간판을 그려온 박태규씨 이외에 이날은 풋풋한 대학생들이 함께 붓을 들었다.

전남대 미술학과에 다니는 안홍제(4학년), 박명지(4학년), 신진아(3학년)씨와 졸업생 강선호(28)씨 그리고 에너지자원공학과에 다니는 신승혁(27)씨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31일 광주극장에서 '경제도시 2' 영화 간판을 그린 대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안홍제·신승혁·박명지·신진아·강선호·박태규<원쪽부터>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감성에 빠지다

대학생들 광주극장 영화 '경제도시2' 손그림 간판 그리기 참여

"부들부들 떨면서 그렸어요"…내일 흥행숙 감독과 함께 상판식

TV 프로그램에서나 봤던 영화 간판 그리는 현장을 찾아, 직접 붓질을 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상기돼 있었다.

안씨 등이 그린 영화 간판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2003년 방한 기록을 담은 '경제도시 2', 가로 3m 80cm, 세로 2m 10cm 크기의 간판에는 송교수의 고뇌하는 얼굴과 뒷모습이 담겼다.

간판을 그릴 때는 스케치를 한 후 먼저 배경을 칠한다. 그리고 가장 신경을 쓰는 얼굴은 마지막에 그려 넣고 영화 제목 등 글씨를 쓴 후 작업을 마무리한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선호씨는 전체적인 그림 작업에 참여하고, 미술이론 전공생들이나 마지막 학생들은 글씨를 쓰거나 배경 색칠을 담당했다.

간판 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든 게 끄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 감성

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즐겁다"고 입을 모았다.

"영화 제목 세 글자를 썼는데 2시간 동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작업했어요.(웃음).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다른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이라 무척 즐겁습니다."(신승혁)

"유성페인트로 작업하는 거라 무척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그리는 간판도 꽤 큰데 예전에는 지금 간판 보다 몇 배는 큰 곳에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서서 그림을 그리니 체력 소모도 만만찮던데요. TV나 영화같은 데서 보고 궁금증이 컸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강선호)

"어렸을 적 드라마 '은밀이'에서 간판 그리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극장에 가면 이런 간판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추억 속에 남아 있게 돼 안타깝죠. 직접 참여하게 돼 즐거웠어요."(박명지)

지금은 모든 극장이 컴퓨터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디지털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 감성

해 극장 간판을 만들고 있지만 광주극장은 1년에 2~3차례는 꼭 손그림 간판을 내건다. 극장측은 다음 간판 작업 때도 관객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훌륭한 간판을 그렸는데 이렇게 여럿이 함께 하니까 좋네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간판에 관심이 있는 이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박태규씨는 특히 "이번 영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기도 해 더욱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업은 학생들에게 남다른 추억으로 자리잡을 듯하다. 이번 간판 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은 하나 하나 간판에 새겨진다. 또 3일에는 광주극장을 방문하는 '경제도시 2'의 흥행숙 감독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2 손간판 상판식'도 열린다.

이날 광주를 찾는 흥행숙은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 사회로 열리는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전작인 '경제도시 1'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

국립광주박물관 '가족 나들이'

큐레이터와 함께 문화 체험

문화관·미술관 등 탐방

"큐레이터와 함께 미술관·박물관으로 놀러가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을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로 정하고 오는 11월까지 '2010년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를 펼친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나들이는 보성태백 산맥문화관, 화순다산미술관, 함평자 월미술관 등 광주·전남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박물관의 전문큐레이터가 동참해 방문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관람을 돋고, 순천 선암사, 강진 다산 초당 등 사찰과 유적지 등도 함께 답사하게 된다. 또 큐레이터의 안내로 해당 박물관·미술관에서 부채만들기, 천연염색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오는 10일 순천을 시작으로 보성·



지난해 여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09년 우리 가족 박물관 나들이'에서 참가자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이 부담해야 하며,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gwangju.museum.go.kr>)에 접수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행사다"고 말했다. 문의 062-570-70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배우 조재현 광주 강연회

내일 영상복합문화관

영화배우 조재현씨가 광주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3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6층 G시네마에서 '2010년 제1회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 지역



국내글쓰기대회		대한민국 글쓰기대회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18회	제19회	제20회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제24회
제25회	제26회	제27회	제28회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제32회
제33회	제34회	제35회	제36회
제37회	제38회	제39회	제40회
제41회	제42회	제43회	제44회
제45회	제46회	제47회	제48회
제49회	제50회	제51회	제52회
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제57회	제58회	제59회	제60회
제61회	제62회	제63회	제64회
제65회	제66회	제67회	제68회
제69회	제70회	제71회	제72회
제73회	제74회	제75회	제76회
제77회	제78회	제79회	제80회
제81회	제82회	제83회	제84회
제85회	제86회	제87회	제88회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제93회	제94회	제95회	제96회
제97회	제98회	제99회	제100회
제101회	제102회	제103회	제104회
제105회	제106회	제107회	제108회
제109회	제110회	제111회	제112회
제113회	제114회	제115회	제116회
제117회	제118회	제119회	제120회
제121회	제122회	제123회	제124회
제125회	제126회	제127회	제128회
제129회	제130회	제131회	제132회
제133회	제134회	제135회	제136회
제137회	제138회	제139회	제140회
제141회	제142회	제143회	제144회
제145회	제146회	제147회	제148회
제149회	제150회	제151회	제152회
제153회	제154회	제155회	제156회
제157회	제158회	제159회	제160회
제161회	제162회	제163회	제164회
제165회	제166회	제167회	제168회
제169회	제170회	제171회	제172회
제173회	제174회	제175회	제176회
제177회	제178회	제179회	제180회
제181회	제182회	제183회	제184회
제185회	제186회	제187회	제188회
제189회	제190회	제191회	제192회
제193회	제194회	제195회	제196회
제197회	제198회	제199회	제200회
제201회	제202회	제203회	제204회
제205회	제206회	제207회	제208회
제209회	제210회	제211회	제212회
제213회	제214회	제215회	제216회
제217회	제218회	제219회	제220회
제221회	제222회	제223회	제224회
제225회	제226회	제227회	제228회
제229회	제230회	제231회	제232회
제233회	제234회	제235회	제236회
제237회	제238회	제239회	제240회
제241회	제242회	제243회	제244회
제245회	제246회	제247회	제248회
제249회	제250회	제251회	제252회
제253회	제254회	제255회	제256회
제257회	제258회	제259회	제260회
제261회	제262회	제263회	제264회
제265회	제266회	제267회	제268회
제269회	제270회	제271회	제272회
제273회	제274회	제275회	제276회
제277회	제278회	제279회	제280회
제281회	제282회	제283회	제284회
제285회	제286회	제287회	제288회
제289회	제290회	제291회	제292회
제293회	제294회	제295회	제296회
제297회	제298회	제299회	제300회
제301회	제302회	제303회	제304회
제305회	제306회	제307회	제308회
제309회	제310회	제311회	제312회
제313회	제314회	제315회	제316회
제317회	제318회	제319회	제320회
제321회	제322회	제323회	제324회
제325회	제326회	제327회	제328회
제329회	제330회	제331회	제332회
제333회	제334회	제335회	제336회
제337회	제338회	제339회	제340회
제341회	제342회	제343회	제344회
제345회	제346회	제347회	제348회
제349회	제350회	제351회	제352회
제353회	제354회	제355회	제356회
제357회	제358회	제359회	제360회
제361회	제362회	제363회	제364회
제365회	제366회	제367회	제368회
제369회	제370회	제371회	제372회
제373회	제374회	제375회	제376회
제377회	제378회	제379회	제380회
제381회	제382회	제383	